



살아가는 동안은 모두가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19 김제 흥복사(興福寺)

절은 깊은 곳에 있지 않았다. 길옆에 있었다. 노랗게 익은 은행잎이 소리 없이 쌓이고, 문밖 들판에서는 갈대숲이 일렁인다. 들성등성 끊어진 돌담을 대나무로 감고, 마당 한 편엔 미륵불을 모셨다. 사천왕문을 들어서자 백구 한 마리가 짖는다. 흥복사다.

흥복사는 650년(백제 의자왕 10)에 고구려에서 백제로 망명한 보덕 스님이 창건했다. 그 때의 이름은 승가사(僧伽寺)였다. 1597년(조선 선조 30) 정유재란 때 불에 타 없어진 절을 1652년(인조 3)에 흥복거사가 중창하고 흥복사라 했다. 1965년에 전강(田岡:

1898~1975) 스님을 모셔와 선원을 개설하고, 1965년 도영 스님이 중창하여 오늘에 이른다.

어느 날, 통영의 미래사에서 효봉(曉峰: 1888~1966) 스님을 시봉하고 있던 박완일이 당대 제일의 선사였던 전강 스님을 뵈기 위해 흥복사로 향했다. 박완일의 나이 23이었다. 전강 스님은 박완일에게 안수정등(岸樹井藤) 화두를 내밀었다. "자네 같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박완일이 대답했다. "꼴만 먹겠습니다."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달다' 고 대답하겠네." 전강 스님의 대답은 '달다' 한 마디였다.

멀리서 스님이 백구를 부른다. 사방엔 사나운 불길, 달려드는 미친 코끼리, 불길과 코끼리를 피해 겨우 나뭇가지 쥐뉘풀에 매달렸지만 그 밑엔 깊은 우물이고 우물엔 이무기가 우글거리고 있

다. 쥐들이 쥐뉘풀을 갉아먹기 시작했고, 손의 힘은 점점 빠져 우물에 떨어질 듯 말 듯,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뭇가지 사이로 벌이 쳐놓은 꼴이 흘러내린다. "어찌하겠는가?" 백구가 스님에게 달려간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삶에서 순간순간은 모두가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꼴 한 방울이 흘러내린다. 어김 없이 찾아와 갈대를 흔드는 가을바람이 그것이고, 한 철 미련 없이 살고 떨어져 쌓이는 노란 은행잎이 그것이다.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에 흥복사에 가 불일이다. 낙엽 쌓인 흥복사 마당을 거닐며 전강 스님의 안수정등 화두를 떠올려볼 일이다. "어찌할 것인가." 묻고 또 물어 불 일이다. 묻고 또 묻는 일이 살아가는 일이기 때문이다. 바람이 갈대에게 묻는다. 어찌할거냐고.

글·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질할 때마다 한 알씩 깨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뒀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

합니다.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꿰게 되면 업장은 멸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 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 1** 염주세트키트 : 108염주 (10mm) 마감용 염주 1개(10mm) 모주 1개 (12mm), 줄(실색), 코핀1개, 팬던트, 이쑤시개
- 2** 염주 하나하나를 줄에 끼웁니다. 가끔 구멍이 막혀 있는 염주는 준비물 중 이쑤시개로 해결합니다.
- 3** 108개의 염주가 다 끼워졌으면 모주(구멍이3개) 앞쪽으로 줄을 교차시켜 모아줍니다.
- 4** 수직으로 나와있는 모주의 구멍에 코핀을 이용하여 두 개의 줄을 빼냅니다.
- 5** 끝부분까지 빼냈으면 3회 정도 힘껏 매듭을 합니다. 매듭부분이 모주 구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 6** 모주로부터 나온 두 줄을 마감용 염주로 통과시킵니다.
- 7** 마감용 염주를 통과시킨 후 줄에 팬던트를 끼워서 다시 마감용 염주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 8** 이때 팬던트와 마감용 염주 사이에 3mm정도 남겨두고 모주와 마감용 염주사이에는 5mm정도 남겨둡니다.
- 9** 두 줄로 2회 앞뒤로 가법계 매듭을 만듭니다.
- 10** 다시 매듭을 3번 힘껏 조이면 됩니다.
- 11** 가위로 2mm정도 남겨두고 자른 후 라이터로 살짝 지저서 손으로 가법계 눌러줍니다.
- 12** 108염주 완성. 실용신안특허출원 20-2011-0003592 20-2011-0004171 20-2011-0005556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얀마돕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